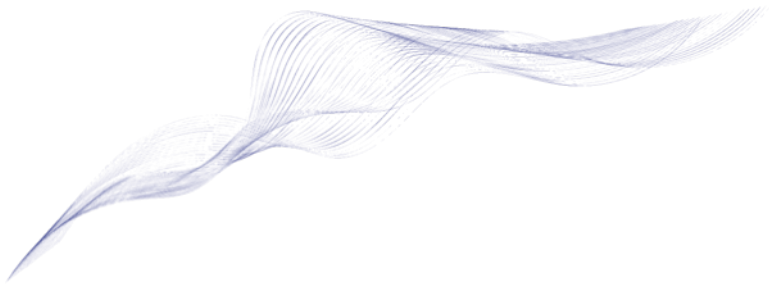


성난
코끼리
다루기



임선호
칼럼집



임선희

오랜 경찰 간부 생활과 인권신문기자를 거쳐 현재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도시교통공학, 문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인스타그램 @limseonho3237

작품 홈페이지 <http://임선희.com>

임선희 작가 홈페이지



2. 감각의 오류들

- 지식의 습득

지식은 어떤 대상을 배우거나 실천으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로써 교육, 지식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이다. 문자가 있기 전에는 구술로 전승했고, 그 후 글로 전승하였다. 인쇄술이 발명되자, 지식은 급속도로 퍼졌으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정보와 지식이 집적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지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지식을 더욱 집적시켰고, 챗GPT로 종합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나 완전한 지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도구에 대한 인간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를 ‘데이터교라는 신흥종교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이런 정보 기술 수단을 신뢰하여 과학만능주의에 빠져들 확률이 높아졌다. 첨단 과학기술로 비교적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 않기에 너무 믿으면 오류를 발생시킨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및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전통을 살피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리고 전문가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권위를 인용하는 방법과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인 직관에 의한 방법이 있다. 또한,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경험이나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인 과학 등을 통해서도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

- 오감의 활용

감각(sense)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때문에 인간 의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눈이나 귀 등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전기적 신호의 한 형태인 활동전위로 바꿔 뇌에 전달한다. 전달된 활동전위는 뉴런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뇌 속에서 분비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뇌에 변화가 생기고 의식이 변한다.

오감(five sense)은 감각 수용기에 따라 분류한다. 시각은 눈, 청각은 귀, 후각은 코, 미각은 혀, 촉각은 피부다. 모든 감각이 중요하지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할 만큼 특히 중요하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따라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를 알아볼 것이다.

시각은 눈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일컫는데, 사물의 크기, 모양, 빛깔, 멀고 가까움을 인지할 수 있다. 인간은 눈으로 본 것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체계화라고 한다.

인간이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아 원래의 사물을 착각하는 현상을 착시라고 한다. 착시는 사물이나 특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착시에는 사물의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착각하는 시각적 착시와 명암,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 특정 자극을 과도하게 수용하는 물리적 착시,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뇌가 무의식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 착시가 있다.

한 심리연구는 눈이 사물을 인지하는 기준으로 색채와 깊이, 거리의 지각을 제시했다. 눈은 색채 지각을 통하여 색상을 구분하며 상대적 기준

에 의해 판단되는 깊이와 사물의 모양, 크기,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는 거리 지각이 있다. 길이 및 거리 지각의 상대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중첩의 경우에는 가려져 있는 사물이 멀리 있다고 판단하며 동일 모양의 사물이라면 상대적 크기에 따라 작은 것이 멀리 있다고 판단한다. 상대적 높이에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가 큰 것이 높고, 표면은 겉을 이루는 무늬가 촘촘할수록 멀다고 판단한다. 낮선 물건과 익숙한 물건 중 익숙한 것을 크게 보며, 곧게 뻗은 가로수는 마주 보는 사이가 좁을수록 멀고, 주변 풍경 중 흐릿하게 보이는 장소를 더 멀리 있다고 판단한다. 차를 타고 가며 보는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보다 천천히 지나가는 가로수가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착시 때문에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로 보고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현실을 인식하다간 세간에 떠도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초 예측 부의 미래, 유발 하라리 등, 2020).

- 지적 오류의 발견



여기 그림이 있다 (선명한 그림은 임선희.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초 정도 보고 나서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 보자. 말하는 게 다르다. 각자의 마음 상태나 강력한 자극 때문에 다르게 보일 것이다. 모양에 따라 정리해 보면 삼각형, 원, 사각형과 주변의 배경 사진이다. 색에 따라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과 주변 사진이다. 또는 빨간색 삼각형이거나 노란 원, 녹색 사각형과 사진 배경 등이 되기도 한다.

보는 이에 따라 그림 중 한 개만 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안전 표시 또는 과녁 등 여러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옳고 옳지 않은 것인가? 사진 한 장을 봐도 이야기가 제각각이다. 이렇게 각자 본 것이 다른데 자신이 본 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뭘 봤냐고 질문하면 (색깔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만 구별) 대략 삼각형이라고 답한 비율이 50%, 원이 25%, 사각형은 15%가량이었다. 외곽 사진 일부만 말하거나 기타 대답이 10% 정도였다.² 수천 명 중 제대로 보고 전체를 대답한 사람은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다.

인간의 눈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인식한다. 개인의 대답은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의도치 않은 거짓이 되었다.

이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된 경험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누구도 속이려고 하지 않았으나 눈이 우리를 속인 셈이다. 탈무드의 격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미래를 위한 선택. 리처드 왓슨/올리버 프리먼 재인용)

왜 일부만 기억할까? 당시의 마음이나 기분에 따른 눈의 작용이 있었

² 위 통계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여러 강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만난 수강자들에게 질문한 결과를 토대로 한 개략적인 수치다.

고, 그에 따라 눈이 인식한 것만 전체로서 기억한 것이다. 각자가 본 것은 마음의 투영이다. 눈이 인식한 것은 사물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다. 형태로서는 삼각형이나 원과 사각형, 주위 배경이고 색깔로는 빨강, 노랑, 녹색, 배경 색깔이다.

전체는 이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형태나 색은 이 그림을 대표하지 못한다. 각자 본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정지된 그림조차 이러는데 움직이는 사물이라면 시각 기억이 정확할 수 있을까? 이동하는 순간의 기억이 부정확할 확률이 더 높다. 눈이 이렇게 왜곡하고 있음을 안다면 사물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주장은 쉽게 할 수 없다.

목격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력을 갖는다. 순간의 기억을 어떻게 믿고 범인을 특정하는지 의문이다. 현장 목격담은 오류 개연성이 훨씬 높다. 더군다나 공포가 함께하고 있으므로 목격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증언을 잘못해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크다. 명백한 인권침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형사소송법의 격언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도형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인식한 것은 아니기에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어느 일부가 대표성을 갖는다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집중한다 해도 모든 경우에 있어 반드시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 인간은 망각하므로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다시 착각할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명백한 오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함을 그림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니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경험한 것이 틀릴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타인을 이해하면서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전체 속의 여러 가지 그림 중 왜 일부만 눈에 띄는 것일까?

현저성 편향 등이 만들어 낸 현상이다.

- 현저성 편향과 확증편향

현저성 편향(Saliency bias)은 어떤 특징이 유난히 눈에 띈다는 이유로 원래 그것이 지닌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원인의 원인으로 나아가는 오류다.

현저성이란 눈에 띄는 특징, 뚜렷하게 드러내는 속성, 특수함, 무엇인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보들은 생각과 행동에, 과한 영향을 미치고 숨겨진 채 천천히 전개되는, 눈에 띄지 않는 요인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게 한다(스마트한 선택들, 롤프 도넬리).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은 현저성 편향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서 현저한 단서를 사건의 원인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관찰자들은 현저하게 지각되는 자극의 속성에 주의를 두고 그 속성이 행위자의 행위를 일으킨 요인으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현저성 편향으로 확증된 지식은 편견을 강화하여 객관적 사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자신의 견해, 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으로, 자기중심적 왜곡이라 하기도 한다.

확증편향은 어떻게 자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부합하는 피드백을 바라며 이를 끌어내려고 한다. “인간은 진실을 믿기보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도 확증편향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대다수 견해가 개인의 합리성보단 공동체 집단사고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SNS 사용자 맞춤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했다. 폐쇄적인 공간에 머무르며 비슷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계속 접하여 왜곡된 채로 굳어지는 반향실효과도 확증편향을 강화한다. 끼리끼리 만나 비슷한 정보를 무한히 주고받는 현상은 온라인이 발달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챗GPT가 주는 정보는 정확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때문에 지식의 확증편향이 더 공고해진다. 확증편향은 편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억이나 감정적 요인, 개인차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각자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현저성 편향을 배제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에 사물의 한 부분을 전체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끼리의 코나 다리를 본 사람이 코끼리 전체를 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다.

현저성 편향에 따라 기억하고 나아가 확증편향으로 굳어져 신념이 되면, 수정하기 매우 어려워 사고의 고착으로 귀결되기 쉽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확증편향은 필터버블에 갇히게 하여 확증편향을 더욱 강화한다.

필터버블이란 개인이 경험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과거의 클릭 동작, 검색 이력 등에 기반하여 웹사이트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지 예상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를 자신만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견해에 머물게 하고 그것을 더욱 고정하게 만드는 걸 말한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변한 확증편향은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된다.

사회에서 타협과 양보가 사라지고 극단주의가 노골화되면 조화로움이 설 자리가 없다.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접근이 쉬워졌으나 역설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단일하게 고착시킴으로써 타협과 양보라는 정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확증편향이 대립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증폭하기에, 대립하는 진영은 자신만의 확고한 입장만 고수하여 진영논리를 강화한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사안의 여러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심지어 조작이라고까지 주장한다.

확증편향은 동일사고를 가진 집단에서도 일어난다. 토론 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토론하면 보다 보수적인 주장이 주목받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토론하면 진보적인 주장이 주목을 받아 집단의 확증편향을 강화한다. 한편의 극단적 주장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반대 측과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종교, 이념, 세대, 젠더 등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과 마주하면 더 증폭된다.

개인의 신념으로 강화된 확증편향으로 생긴 갈등은 해소하기 어렵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더욱 강화된 신념 체계를 이루고, 빠른 사회변화가 만들어 낸 아노미 현상과 결합하므로 갈등의 해소를 방해한다. 이는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겪어온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장자 추수 편에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사는 곳에 얽매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시기에만 얽매었기 때문이며, 시골 선비에게 진리(道)를 말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이 아는 가르침에 얽매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 오만의 극치이다. 그렇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너무 많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그림을 보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빨간 삼각형은 눈에 잘 띈다. 노란 원이나 녹색 사각형도 익숙하다. 그러나 배경 사진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왜? 주변부이기 때문이다. 눈이 주는 왜곡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에 따른 개인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개념이나 크기로 본다면 가장 클 수 있는데 왜 배경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영역을 더 확대하면 수많은 나무가 있다. 다른 사물들도 있다. 차지하는 면적이 넓음에도 왜 간과한 것일까? 현저성 편향이나 확증편향 등 때문이다. 전체를 알려면 중심부는 물론 주변부에도 주목해야 한다.

- 허술한 착각



이 그림을 보자 (선명한 그림은 임선희.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는가? 배경 사진이다. 노란색 원을 제거하고 빨간 삼각형을 이동시켰다. 방금, 전체를 보라고 강조하였음에도 배경 사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니 인간의 인식 체제는 얼마나 허술한가? 뇌는 전체를 봐야 한다는 얼마 전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방금 강조한 사실에만 중점을 뒀

다. 이를 통해 기억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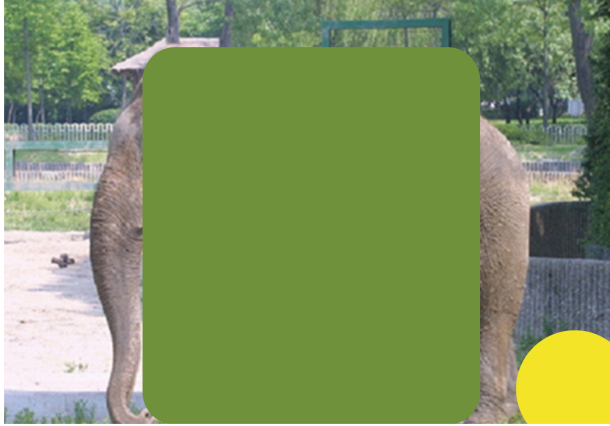
의도적으로 사진 배경을 간과했음을 여러 번 강조했다. 필자가 선입견을 심은 것이다. 선입견이란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다.

청자는 화자의 말에 집중하게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다수가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여 그것이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여론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대중에게 선입견을 심으려는 의도가 있는 기자나 작가의 생각이 전체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고 그것을 믿는 대중의 힘이 사실 왜곡을 더욱 증가시킨다.

왜곡된 사실을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한다. 여기에 진실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 우리는 홍수처럼 몰아쳐 오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짜 뉴스가 더 많고 영향력도 막대하다. 그래서 다수가 옳다는 것, 또는 미디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론은 이렇게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이것은 최근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최근 효과(Recency Effect)란 우리 뇌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정보가 인상이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 확증된 고정관념



그림을 보자 (선명한 그림은 임선희.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와 꼬리 부분만 봐도 코끼리다. 현저성 편향과 확증편향을 다뤘음에도 여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뇌의 방향이 움직임을 알 수 있다.⁴ 이 문제만 전제한다면 논의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코끼리라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상식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및 일반적인 견문이다. 그러나 상식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사회에 따라 상식이 다르다. 어느 사회의 상식은 다른 사회에서는 비상식이다. 우리는 가려진 부분을 보면서 코끼리를 생각했으나 다른 사회에서는 가려진 그림이나 배경에 더 주목할 수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

4 이것은 초두효과(Primacy Effect)로도 설명할 수 있다. 초두효과란 먼저 알게 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한 생각, 또는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말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확고한 고정관념은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너는 ~~다와야 해”이다. 남자다워야 한다거나 여자다워야 한다는 관념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한정했고 ‘남녀 차별’이나 인도의 ‘명예살인’ 같은 사회적 폐습을 낳았다.

고정관념의 원인은 대부분 사회의 학습 결과다. 사회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적 고정관념은 구성원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고정되어 강화된다. 인간 본질의 성찰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사회발전에 장애가 된다. 고정관념이 그 사회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이를 어길 때 집단의 압력이 작용하여 새로운 문화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었으나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처음에 다룬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나이 들어 경험이 많거나 학력이 높으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확고한 고정관념은 때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고정관념을 깨는 첩경은 ‘나는 틀릴 수 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활화한다면 고정관념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고정관념의 문제를 푸는 통찰의 열쇠다.

- 상식의 허구



가려진 도형을 걷어내면 코끼리가 있다. 사람은 코끼리를 보고선 잘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코끼리 털의 개수는? 답할 수 없다. 너무 많다. 코끼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털의 수도 모른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해 보자. 코끼리가 아침으로 과일을 먹었다. 사과일까, 바나나일까? 알 수 없다. 사육사에게 묻거나 위내시경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인간의 지식은 피상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의심해야 한다. 정확하다고 믿는 사실이나 개인적 경험이 절대 옳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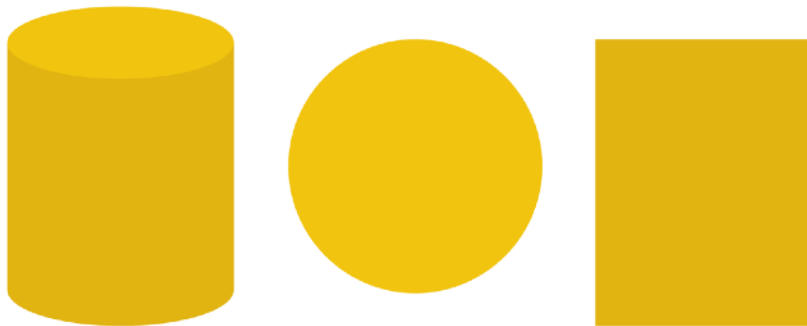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 세상은 달라진다. 상대가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게 되므로 갈등이 생길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상호존중이 일고, 그간 쌓인 굳건한 벽을 허물고 상대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된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고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에드먼드 버크는 “우리는 오래된 편견을 던져버리는 대신 소중히 여긴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그것이 편견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편견 및 고정관념, 나무위키 인용)라며, 편견의 강고함을 지적했다. 편견을 버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통찰이 일어난다.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던 마음도 변화하여 따스해진다.

마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부정적으로 보면 세계는 온통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아름답고 밝은 모습이다.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가장이 아내의 말을 경청할 때,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가족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지식 편향에 더해 자신의 예고를 강화하여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생각은 모든 관계에서 불통의 원인이 되고 대화는 단절된다. 그간 독단의 깊은 예고가 만들어 낸 상처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혀 왔으며, 가족이나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세계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입체적으로 보기



원통형 물체가 있다. 위나 아래에서 보면 원으로 보인다.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다. 보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거리와도 관련이 있다. 너무 멀면 작아서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워도 커서 제대로 볼 수 없다. 적정 거리에 있을 때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가시거리는 눈의 한계다. 적정 거리를 유지했을 때 물체는 입체적으로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평면적으로 보인다. 입체적인 물체를 평면적으로 보면 왜곡이 생긴다. 적정 거리를 유지할 때, 전방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안전 운전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므로 사방을 주시해야 한다.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앞뒤, 옆, 도로 등의 제반 환경을 살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 전문성의 오류



정육면체를 보자.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앞뒤, 옆에서 보든 언제나 정사각형이다. 경험이 많거나 전문가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다. 경험이 많은 집단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기에 이것이 옳다며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전문가집단은 많은 실험과 검증을 했으므로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전후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평면적으로 보는 한 정사각형이기에 많이 살펴보고 경험했으니 옳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물체는 어느 방향에서든 평면적으로는 정사각형이므로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입체적인 정육면체이므로 이를 제대로 보려면 세심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권위를 더해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 대중은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수정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천동설이 진리라는 중세교회의 믿음은 그 당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강력히 제재했다. 무엇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의 극복을 통하여 기존 관념을 넘어서서 진실로 향하려는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위 그림은 야누스의 신이다. 머리는 하나, 얼굴이 둘이다. 인간 마음의 내면을 표상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긍정과 부정, 선악, 행복과 불행이 함께한다. 언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비되어 쌍을 이룬다. 나누어 대립시켜 이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다룬다. 일반적으로 대립 쌍들 사이에 중간 영역이 들어설 틈이 없다. 그러나 삶은 때로는 긍정과 부정, 선악이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도 동시에 존재한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결국 하나의 동전이다.

헤이즐 로즈 마케스와 엘러나 코너는 만물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하며 세상은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고 믿었다. 자아가 인간관계와 주변 상황, 역사의 제약 속에 존재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서로 모순되어 있다고 본다(우리는 왜 충돌하는가, 2015).

- 긍정과 부정

사람은 단면만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은 좋은 것, 부정은 나쁜 것,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는 선입견에서 출발하여 결정하는데 이는 좋은 게 아니다.

긍정은 어떤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함을 의미하고, 부정은 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으로 사전은 정의한다. 그러나 긍정이 반드시 좋은 것도 부정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을 긍정으로 오해하여 잘못을 덮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잘못을 통해 긍정적 발전의 면을 발견한다면 부정이 아닌 긍정이지만, 잘못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 조건 없는 긍정이나 잘못된 사랑은 잘못을 더 키울 수 있어 진정한 긍정이 아니다.

부정은 잘못된 사람의 옳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시작된다. 비판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 부정이 반드시 나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주장과 다르면 부정의 언어라며 사회와 국가에 해악이라는 주장은 독재자의 자기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의견의 합의 과정을 도출하고 집단지성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신은 사랑의 존재로 사랑을 나누기에도 벅차 미워할 시간이 없다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말했다. 그는 종교적 권위에 기대어 신을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켜 종교인이 이익을 얻는 것을 경계했다. 신을 증오의 존재로 만든 교리의 확산은 격렬한 전쟁과 박해의 토대를 제공했다. 이는 종교의 몰락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몰락하는 원인이다. 종교가 부정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다. 호킨스 박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무조건 사랑하는 자세로, 사심 없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견을 내세우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신성의 사랑과 자비, 무한한

지혜, 연민을 신뢰하라고 조언한다.

부정의 가치보다 긍정의 가치가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마음이 긍정적이면 인간은 긍정의 따스함을 지향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있을 것이기에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므로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 선과 악

선은 좋게 여기거나 좋음, 높거나 착한 것을 의미한다. 악은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선악 개념은 상대적이다.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선악은 다르게 평가된다. 오든(Wystan Hugh Auden)은 “악은 특별하지도 않고 항상 인간적이며 우리와 함께 자고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에 깊숙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필요악이란 나쁘지만, 그렇다고 없애면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어 없애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법과 군대가 있다. 최소한의 도덕으로 사회가 규율되면 법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하기에 필요악적인 존재다. 전쟁이 발발하면 살인은 불가피하다. 원천적으로 법이나 군대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다. 인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존재로 본다면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 행복과 불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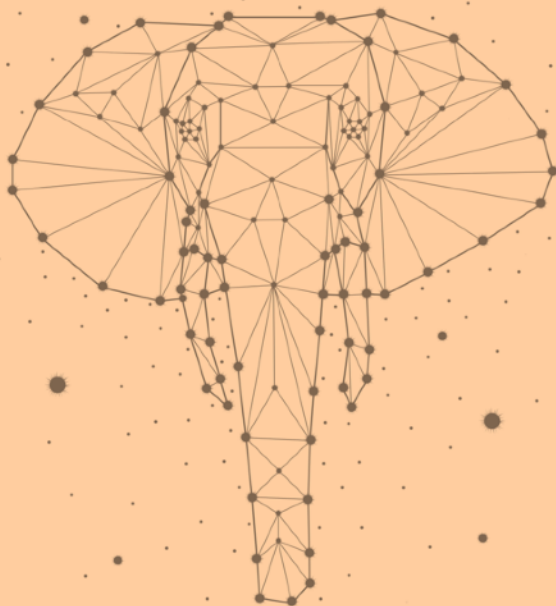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불행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다. 카알 힐티(Carl Hilty)는 “언제나 불행은 인생에 수반되며, 역설적이지만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에듀인 뉴스, 배호순 재인용, 2019).

행복은 역설적으로 시련과 역경, 고난을 경험하여 이를 극복하지 않고

서는 진정 알 수 없기에 불행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도종환 시인은 말했다. 꽃을 피우려면 강풍, 폭우, 가뭄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자연처럼 인간도 인생의 시련을 통해 진정한 의식 성장을 이룬다. 또한,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의 관문에 도달할 수 있다. 성찰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마음을 부정보다 긍정으로, 악보다 선으로, 불행보다 행복으로 향하여 긍정적이고 선하게, 행복을 추구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사색의장



성난 코끼리 다루기

임선호 작가 홈페이지



성난
코끼리
다루기



성난 코끼리 다루기

위기 시대의 내비게이션

발행일 | 2024년 1월 1일

지은이 | 임선호

펴낸이 | 마형민

기획 | 신건희

표지 | 김안석

편집 | 임수안, 박소현

펴낸곳 | (주)페스트북

주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판교로 20

홈페이지 | Festbook.co.kr

책값 15,000원

© 임선호 2024.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6929-436-2 03300

* (주)페스트북은 '작가중심주의'를 고수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도록 돕습니다. Creative@festbook.co.kr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보내주세요.